
자유지론과 기독교윤리: 어거스틴, 아퀴나스, 루터의 자유지론에 대한 소고

유경동*

I. 서론

기독교신학에 있어서 자유지론은 신학적 인간론에서 다루는 양심론과 자아 개념 그리고 인간의 영혼론과 관계된 매우 중요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의 양심 안에서 자유지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자유지론이 자아를 구성하는 데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 자유지론과의 관계는 어떻게 파악되는지에 대한 주제는 고전적 인간론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본다. 필자는 현대 기독교윤리학의 인간론에서 제시되는 자유지론과 책임의 문제가 과연 현대 인문학에서 신장하는 인간의 자유에 대하여 적절하게 응답하고 있는지 의문을 가지며, 세계 도처에서 벌어지는 인간

* 감리교신학대학교 교수, 기독교 윤리학

성의 상실에 대하여 문제의식을 가지고 고전적 자유의지와 책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본다.¹⁾

현대 신학에서 전개하는 자유의지론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크게 신정통주의적 관점과 자유주의적 관점으로 나눌 수 있는데, 어거스틴(Augustine) 신학으로부터 출발하는 신정통주의적 관점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삼위일체적 존재로 해석한다.²⁾ 인간이 된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진정한 형상'이 인간에게 체화됨으로써 이루어지며, 그리스도의 인격으로부터 육체를 포함하는 삼위일체성이 형성되고, 성령에 의해 그 관계가 유지된다는 관점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 존재는 개별적인 관점을 넘어 그 자체로 사회적-공동체적 속성을 가지며, 비록 개별적 인격이 서로 구별되어 있지만 전 인격이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을 연결하는 삼위일체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³⁾ 어거스틴이 전개하는 자유의지는 비물질적인 정신의 영역에 제한되고, 개별적 특징에 집중하는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자유의지가 이성적 영혼의 회복을 통한 최고의 선을 추구하는 진리를 지향하는 존재의 모습이 가능하다.⁴⁾ 같은 맥락

1) 필자의 관점에서 볼 때, 현대 기독교 윤리학에서 '책임'의 문제는 리처드 니버(Richard Niebuhr)의 "책임적 자아(Responsible Self, 1963)"를 통하여 잘 개관되었다고 본다. 그는 역사적 상대주의를 극복하기 위하여 "계시의 의미(The Meaning of Revelation, 1941)"에서 계시를 내적 역사 안에서 인식 가능하다고 보았으며, 이에 부응하는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구성하는 '책임적인 존재'로 그리고 있다. 필자는 인간의 책임과 이를 수행하는 의지의 상관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어거스틴(Augustine), 아퀴나스(Thomas Aquinas), 그리고 루터(Martin Luther)와 같은 기독교의 대표적인 사상가들이 '의지'의 문제를 어떻게 통찰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논지를 전개한다.

2) Joshua McNall, *A Free Corrector: Colin Gunton and the Legacy of Augustine* (Minneapolis, MN: Fortress Press, 2015), 12. 이 책에서 조슈아 맥널(Joshua McNall)은 콜린 건턴(Colin Gunton)의 입장을 따르고 있다.

3) Ibid., 12.

4) Ibid., 284. 건턴(Gunton)은 인간은 육체와 정신을 모두 가진 전체로서 자유로운 의지를 지

에서 신정론적 관점은 죄의 실존의 문제를 자유의지에 대한 인간의 오용으로 설명함으로써 자유란 왜 인간이 악을 허용하는지에 대하여 도덕적으로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보고 있다.⁵⁾

한편, 자유주의 신학적 관점에서는 인간의 원죄(original sin)라는 실존은 인정하지만, 인간의 원죄적 죄책(original guilt)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다. 인간의 합리성과 자유를 강조하는 이러한 입장은 하나님의 은총을 인정하지만,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하여 현실에서 도덕적 선택을 해야 하는 책임을 강조하며, 따라서 구원도 예정론이 아니라 하나님은 '시간 밖에서'(outside time) 모든 것을 관찰하신다는 '수동적 전지성'(omniscience)이 강조된다.⁶⁾

필자는 위와 같은 현대의 자유의지론을 염두에 두고 어거스틴(Augustine)과 아퀴나스(Thomas Aquinas) 그리고 마틴 루터(Martin Luther)의 자유의지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위의 세 사상가는 기독교 신학을 구성하는 데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으며, 비록 고전적 관점이지만 현대 신학에 여전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살펴볼겠지만, 위의 세 사상가는 인간 존재론에 대한 자유의지를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맥락에서 논하지만, 각기 차이점을 가지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관점에서 논지를 전개하도록 하겠다. 첫째, 어거스틴, 아퀴나스 그리고 루터의 자유의지 개념을 정리한다. 둘째, 각 사상가들의 자유의지 개념을 비교 검토하고 그리고 셋째, 고전적 자유의지 개념이 기독교윤리학에 기여할 수 있는 공헌에 대하여

닌 존재로 정의함으로써 자유의지를 비물질적인 정신적 영역에 국한하는 어거스틴의 관점을 극복하려하고 있다고 조슈아 맥널(Joshua McNall)은 해석하고 있다.

5) Mark S. M. Scott, *Pathways in Theodicy: An Introduction to the Problem of Evil* (Minneapolis, MN: Fortress Press, 2015), 75.

6) Michael J. Langford, *The Tradition of Liberal Theology* (Grand Rapids: Eerdmans, 2014), 37-43.

간략하게 정리하겠다.

그동안 국내에서 ‘자유의지’에 관한 연구가 간혹 있었지만, 세 학자를 비교하는 논문은 없으며, 자유의지론을 통한 윤리적 의미를 도출하는 내용도 없었다. 이 논문은 현대 문명이 추구하는 자유와 합리성에 기반을 둔 인간론에 한계가 있음을 전제하면서, ‘자유의지’에 관한 신학적 인간론이 현대의 인간성을 재해석하고 구성하는 데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II. 어거스틴의 자유의지론

어거스틴의 자유의지론은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고 본다. 첫째, 펠라기우스와의 ‘자유의지’ 논쟁, 둘째, 인간의 죄로 인한 자유의지의 왜곡과 도덕적 판단의 가능성에 대한 비판 그리고 셋째, 하나님의 은총을 통한 자유의지의 회복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차례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거스틴은 신플라톤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그의 사상 초기에는 의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점차적으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인간 의지의 한계를 피력한다. 일반적으로 인간의 의지를 말할 때 신과의 관계가 제기되는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자신의 의지로 책임 있는 행위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지의 문제와 연관이 된다. 만일 인간이 완전한 자유의지를 가졌다면, 성서에서 제시하는 인간의 타락과 원죄 그리고 이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의 기독교론에 문제가 생긴다. 어거스틴의 관점에서는 인간의 의지는 왜곡 되어서 그 의지 자체가 죄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빠지며, 인간은 ‘죄를 지을 자유의지’만을 가진다고 강조한다.⁷⁾ 결국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행위와

인간의 자유 사이에 갈등이 있을 수 있으며, 인간의 과도한 욕망이 도덕적인 악의 근원이 될 수 있다고 본다.⁸⁾

어거스틴 사상에 있어서 인간의 자유의지 문제는 세상의 악의 현실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유래한 것인지, 아니면 인간에 의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논의되었다. 어거스틴에 따르면 인간은 영원한 것, 즉 위로부터의 지식과 덕 그리고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고, 일시적인 것을 추구하는 욕망으로 인해 악을 저지르며 징벌을 당하게 된다.⁹⁾ 어거스틴은 온전한 덕 안에서의 일치와 악 안에서의 불일치의 문제에 직면하여 진정한 일치는 “이성적 영혼과 진리의 속성 그리고 최고의 선”을 통하여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¹⁰⁾ 악이란 일종의 구체적인 속성을 띠고 현실의 생활에 영향을 주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유래하는 것은 아니다.¹¹⁾ 인간은 기본적으로 감각적 능력과 욕망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지적 능력과 의지를 가진다. 인간은 감각을 통해 주변 세계를 인식하며, 이러한 감각으로부터 기본적인 욕망이 일어난다. 그러나 욕망은 그 스스로 바라는 것을 다 이룰 수 없다. 왜냐하면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과 의지는 인간 주체가 절대적인 육체적 욕망에만 사로잡히게 내버려두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인간 의지의 본래적 역할이 있음에도 인간은 의지의 왜곡 때문에 욕망에 굴복

7) Augustine, trans. Henry Bettenson, *City of God* (NY: Penguin Books, 1972), 12권 21장; 20권 1장; 22권 30장을 참조하라.

8) Augustine, trans. by Thomas Williams, *On Free Choice of the Will (De libero arbitrio)* (Cambridge: Hackett, 1993), I권 4장.

9) Augustine, *Confession and Enchiridion*, trans. Albert C. Outler (Grand Rapids, MI: Christian Classics Ethereal Library), 4권 15장. Christian Classics Ethereal Library 홈페이지, (2006년 7월 31일에 최종 수정, 2016년 6월 27일에 접속.

URL=<http://www.ccel.org/ccel/augustine/confessions.pdf>

10) Ibid., 4권 15장.

11) Ibid.

한다. 왜냐하면 인간의 의지는 비록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지만, 그 의지 자체가 완전히 행함으로 수행될 수 있을 정도로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의지는 불완전하여지고 실패하는 것이다.¹²⁾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거스틴은 기본적으로 의지는 자유롭게 움직이지만, 어떠한 충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보았다. 만일 의지가 강요된다면, 그것은 의지일 수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지적 능력과 의지는 영원한 것을 추구함으로써 일시적인 욕망을 제어할 수 있지만, 타락 후에 인간은 일시적인 것에 대한 욕망에 굴복함으로써 자유롭게 죄를 범하고 고통을 당하게 된다.¹³⁾ 예를 들어 충동적인 행위의 경우, 폭력적 충동 때문에 영혼의 감정이 왜곡이 되면 격정적인 행동이 뒤따르게 되고, 영혼이 잘못 영향을 받게 되면, 욕망은 욕욕을 따르게 되어 인간의 영혼과 이성적 행위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게 된다.¹⁴⁾ 따라서 부분적으로는 인간의 이성이나 자유로운 의지는 인간 자신의 욕욕에 의하여 왜곡되기 때문에, 인간이 세상에서 저지르는 죄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에서의 문제는, 펠라기우스에게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인간의 자유 의지의 범위를 자칫 인간이 자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문제까지 확장할 수 있다는 문제가 생긴다.¹⁵⁾ 따라서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은총과 인간의 수동적 구원 가능성에 더 초점을 두고 인간의 자유 의지

12) Ibid., 8권 9장.

13) Ibid., 7권 3장.

14) Ibid., 4권 15장.

15) Augustine, *Anti-Pelagian Writings, Nicene and Post-Nicene Fathers Series 1, Volume 5*, ed., Philip Schaff (Cosimo Classics: 2007), "No one is certain and secure of his own predestination and salvation," *A Treatise on Grace and Free Will*, Christian Classics Ethereal Library 홈페이지, (2007년 1월 1일에 최종 수정, 2016년 6월 27일에 접속.

URL= <http://www.ccel.org/ccel/schaff/npnf105>).

를 제한한다.

둘째, 어거스틴은 죄로 인한 인간의 의지가 왜곡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의 뜻을 따르지 못할 정도로 훼손되었다고 강조한다. 어거스틴의 논의는 하나님이 악의 근원인지 아닌지에 대한 근본적인 신정론적 질문으로부터 시작하여 “만약 당신이 하나님은 선하다고 알고 있거나 믿고 있다면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믿음은 가당치 않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그 어떤 악도 행하실 수 없다”고 주장한다.¹⁶⁾ 어거스틴은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인간에게 자유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의 근원을 하나님 자신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인간이 자유의지의 왜곡으로 타락을 자초한 것이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인간에게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악을 통하여 인간의 의지를 타락하게 하였다는 논리로 귀결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의 의지가 하나님의 선으로부터 멀어지는 움직임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만든 일이다.¹⁷⁾ 그러므로 어거스틴에게 있어서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구원의 선재적인 계획성은 처음부터 양립가능한 원리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선재적인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양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혀 어리석은 것이 아니며, 오히려 이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라고 어거스틴은 지적한다.¹⁸⁾

어거스틴에게 있어서 자유의지의 문제는 인간의 도덕적 판단에 결부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이 모든 존재하는 것의 원인 이지만,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한 악한 선택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원인은 아니며,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는 인간 의지의 행위가 곧 죄인

16) Augustine, *On Free Choice of the Will*, 1권 1장.

17) Augustine, *Confession*, 12권 11장.

18) Augustine, *On Free Choice of the Will*, 3권 21장.

것이다.¹⁹⁾ 결국 죄의 문제를 하나님에게 전가하는 신정론적 질문에 대하여 인간의 책임임을 지적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자유로운 의지의 선택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으며, 도덕적 책임의 귀속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능력이 나오지만, 인간의 의지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의 자유가 제한되었다고 할 수 있다.²⁰⁾ 행위에 대한 보상이나 처벌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행위를 한 책임을 져야할 주체가 있어야만 한다. 만약 의지의 자유로운 선택을 부정하게 되면, 악의 문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려지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거스틴은 만약 인간의 악과 죄의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이라고 본다면, 피조물은 절대 죄를 지을 수 없을 것이라는 논리가 성립되며, 이렇게 되면 그 누구도 인간에 대하여 비난할 이유가 없게 되는 모순에 빠진다고 지적한다.²¹⁾

따라서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섭리적 계시가 인간의 자유의지를 파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어거스틴은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당신이 이제부터 1년 동안 행복해질 것이라고 가정해보라. 그렇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제부터 1년간 행복하게 할 것이라는 뜻이 될 것이다.”²²⁾ 문제는 이러한 행복이 그 행복을 경험할 주체의 의지와 관계없다면, 그것이 자명한 행복일 수는 없을 것이다. ‘행복하게 될 것’이라는 뜻은 행복해야만 한다는 인간의 의무를 암시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가정 안에는 인간의 자유로운 의지의 선택을 파괴할 만한 어떤 요소라든지, 그

19) Augustine, *Confession*, 12권 11장.

20) Augustine, *City of God*, 5권 8장,

21) Augustine, *On Free Choice of the Will*, 3권 16장.

22) Ibid., 3권 3장. 이하 ‘행복’에 대한 해석은 어거스틴의 같은 3권 3장의 어거스틴의 관점을 옮긴다.

인과관계를 필연적으로 연결할 만한 전제가 들어있을 수 없다. 따라서 이 말에는 현재 아직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면 우리는 행복하기 위한 의지를 가질 것이며,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면 그대로 행복하면 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하나님이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섭리와 인간의 의지가 절대 반대되거나 상충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미래에 대하여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고 믿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바를 자유롭게 행한다는 것을 동시에 믿게 되는 것이다.²³⁾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선재적 은총과 양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욕욕에 지배되는 의지의 왜곡으로 말미암은 죄는 이제 전적으로 인간의 책임에 국한된다. 인간의 죄가 그 행동 주체로서 인간의 의지와 관계없는 또 다른 원인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이라면, 인간의 도덕적 죄의 행위에 대하여, 인간은 책임이 없게 된다. 어거스틴은 인간의 의지가 죄의 첫 번째 원인이 아니라면, 그 어떤 것도 첫 번째 원리가 될 수도 없다고 보며, 어떤 죄에 대한 책임을 그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정당하게 전가할 수 없다고 본다.²⁴⁾ 죄를 짓도록 내버려둔 그 자신의 의지와 그 책임은 그 누구의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이다.

이로부터 어거스틴은 죄와 관련하여 인간의 자유의지를 두 가지로 구분한다. 이는 죄를 지을 자유와 죄를 짓지 않을 자유이다. 죄로 향하여 나아가는 의지의 결과에 대하여 두려운 생각이 들면, 이를 행하지 말아야 한다. 죄를 지을 의지가 없다면, 죄를 짓게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어거스틴은 자신이 바라지 않는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다는 믿음 속에 살아가는 인생만큼 더 안전하고 행복한 것은 없다고 본다.²⁵⁾

23) Ibid., 3권 3장.

24) Ibid., 3권 17장.

셋째, 어거스틴은 죄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의지의 원천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이를 통하여 인간의 진정한 자유가 형성된다고 본다.²⁶⁾ 이는 한편으로 인간의 자유란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음을 의미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라면 인간의 행위의 자유는 가능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는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세상에 대하여 판단하고, 이 이성에 따라 행동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근원이시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참된 지식에 이르게 되며,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²⁷⁾ 어거스틴은 자유의지가 폐기되면서까지 하나님의 전지성을 보존하는 것은 강요이며, 반대로 자유의지를 지키려고 하나님의 전지성을 부인하는 신성모독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²⁸⁾ 이 하나님의 선재적인 은총과 자유의지는 진리로서 양자의 관점이 다 수용되어야 하며, 하나님은 우리를 올바른 신앙으로 인도하시고 바른 삶으로 이끄시는 것이다.²⁹⁾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본성을 창조하셨으며,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도록 의지를 주셨다. 그러나 인간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주어진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성 상 악한 의지의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거스틴의 인간론은 존재와 비존재의 중간에 위치한다고 할 수 있다. 어거스틴은 인간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비존재'(unreal)이지만, 한편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존재'(real)인 것이다.³⁰⁾ 존재와 비존재의 중간으로서

25) Ibid., 2권 20장.

26) Montague Brown, "Augustine on Freedom and God," *The Saint Anselm Journal*, 2, No. 2 (Spring, 2005), 51.

27) Ibid.

28) Augustine, *City of God*, 5권 10장.

29) Ibid.

30) Augustine, *Confession*, 7권 11장.

인간은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악한 의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본성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³¹⁾ 이 의지의 원천은 영혼의 악함으로 기인하지만, 그 영혼의 선함에 있어서는 창조주의 의지가 첫 번째 움직임을 주도하는 것이다.³²⁾ 따라서 타락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재적 은총은 여전히 인간을 구속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다. 피조물은 전적으로 모든 부분에 대하여 창조주에 빛을 지고 있지만, 창조주 자신은 피조물로부터 그 어떤 빛도 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자유롭게 모든 것을 주시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람에게 무언가 빛을 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빛을 지는 존재가 아니며, 인간의 어떠한 재능에도 기대지 않으신다.³³⁾ 이러한 인간의 의지와 자유, 그리고 하나님의 인간을 향하신 은총만이 인간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다.³⁴⁾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어거스틴은 세상의 악의 문제와 결부하여 인간의 의지의 문제를 살펴보았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오로지 이성적 영혼의 회복을 통한 진리의 깨달음 그리고 최고의 선인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하여 그 해답을 모색하였다. 의지는 자유로운 것이지만, 고통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인간의 영혼과 이성이 죄로 인하여 타락하였고, 왜곡된 의지는 제아무리 구원을 위하여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빠진다. 따라서 하나님의 선재적 은총을 통하여 회복된 인간의 자유의지만이 도덕적 이상을 구현할 수 있는 답이 되는 것이다.

31) Augustine, *City of God*, 5권 9장.

32) Ibid., 13권 15장.

33) Augustine, *On Free Choice of the Will*, 3권 16장.

34) Augustine, *City of God*, 5권 9장.

III. 아퀴나스의 자유의지론

아퀴나스의 자유의지론은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 따라 자유의지는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으로 보았고, 둘째, 자유의지는 도덕적 습관에 의하여 신장 되는 것이 아닌 능력이며 그리고 셋째, 자유의지의 궁극적 목적은 진정한 자유를 추구하는 것이라는 관점이다. 그 내용을 차례로 살펴보자.

첫째, 아퀴나스는 자유의지를 우선 인간의 본성으로 이해하며, 하나님은 은총 아래 궁극적인 선을 지향하는 것으로 파악한다.³⁵⁾ 어거스틴과 마찬가지로 아퀴나스는 자유의지를 인간의 도덕적 행위, 도덕적 선택과 연관 지어 설명한다. 만약 자유의지가 습관이라면, 이는 인간이 이성적으로 진리를 이해하는 것은 도덕적 행위와 아무런 관련이 없게 된다. 단지 인습적 인과관계에 의하여 의지가 형성된다고 한다면, 인간의 자유의지는 인간의 선하고 악한 행위의 선택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 되며, 자유의지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능력이 되고 말 것이다.³⁶⁾ 그러나 신학적 인간학에서 아퀴나스가 지적하는 자유의지는 인간이 원죄로부터 자유의지를 잃었으며, 이는 죄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연적인 자유를 잃은 것이 아니라, 죄와 불행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자유를 빼앗겼다는 관점에서 해석된다.³⁷⁾

자유의지에 관한 아퀴나스의 사상은 주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따라서 인간은 자신이 선하다고 간주하는 특정한 내적인 목적을 향하

35) Thomas Aquinas, trans. Fathers of the English Dominican Province, *Summa theologiae* (NY: Benziger Bros., 1947), I-I(first part of first part), Q(question). 83, A(article). 2. Christian Classics Ethereal Library 홈페이지, (2005년 7월 13일에 최종 수정, 2016년 6월 28일에 접속. URL=<http://www.ccel.org/ccel/aquinas/summa,i.html>).

36) Ibid.

37) Ibid., I-I, Q. 83, A. 2.

여 움직인다고 보았다.³⁸⁾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 육체와 영혼은 직·간접적으로 움직인다.³⁹⁾ 궁극적 목적이란 곧 인간이 성취하려고 노력하는 최종적인 목적이나 대상으로서 곧 행복이며, 하나님의 뜻에 드러나는 선하심에 전적으로 의지할 때 행복이 가능한 것이다.⁴⁰⁾ 아퀴나스는 목적을 지향하는 인간의 행위와 의지의 관계성에 대하여 논의하며 자유의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인간이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것은 그가 그 상황에서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 인지하고, 그것에 대응하는 행위를 선택하게 되는데, 이때 기본적으로 인간의 자유의지는 행위의 궁극적 목적과 결부된다.⁴¹⁾

아퀴나스는 인간의 자유의지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통제 하에 있으며, 비록 인간에 해당하는 것임에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게 된다고 아퀴나스는 보았다.⁴²⁾ 그러나 인간은 자신의 이성과 의지를 통한 자신의 행위에 주체적이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들은 자유의지와 결부되는 것이다.⁴³⁾ 자유의지는 인간이 상담하고 명령하며 금지하고 처벌하는 등의 다양한 윤리적, 도덕적 행위에 기본이 된다. 어거스틴과 마찬가지로, 아퀴나스도 존재의 위계질서를 통해 자유의지를 인간의 기본적 속성으로 이해한다. 예를 들어 무생물은 판단 없이 행위하는데, 이는 물리적인 자연법칙에 지배된다. 반면 동물은 판단이 가능하지만, 그러한 판단 또한 자유로운 판단이 아니라, 자연적인 본능에 근거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경우, 인간은 판단을 바탕으로 행위하며, 이러

38) Ibid., I-I, Q. 6, A. 4.

39) Ibid., I-I, Q. 76, A. 1; Q. 63, A. 6.

40) Ibid., I-I, Q. 21, A. 4.

41) Ibid., I-I, Q. 19, A. 10; Q. 22, A. 2.

42) Ibid., II-II, Q. 4, A. 8.

43) Ibid., I-II, Q. 1, A. 1. 이하 같은 article의 아퀴나스 관점을 옮긴다.

한 판단은 자연적 본능이 아니라, 이성에 따라 이루어지는 합리적 판단이다. 따라서 아퀴나스는 인간이 합리적인 한, 인간은 필연적으로 자유의지를 가진다고 결론을 내린다.⁴⁴⁾

인간의 자유의지는 선한 행위를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먼저 그 행위는 도덕적으로 용인할 만한 형태의 행위여야 하며, 두 번째로 적절한 목적을 지향하는 행위여야 하는데, 자유의지는 단순히 인간의 행위의 모든 자유성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가 도덕적으로 올바르고 궁극적 목적에 적합하도록 인간의 행위를 조절하고 가능하게 하는 합리적 원리라고 할 수 있다.⁴⁵⁾ 따라서 의지에 있어서의 자유는 언제나 지적 능력에 있어서의 합리적 자유로부터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아퀴나스는 인간의 합리적 이성의 작용으로서 자유의지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자유의지는 선과 악의 경향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⁴⁶⁾ 인간은 자유 의지만으로는 구원의 문제라든지, 진리를 인식하는 문제를 온전히 수행할 수 없다. 따라서 만약 자유의지가 하나님에 의해 움직이고 그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인간이 진리로 나아가기 위하여서는 자유의지만으로는 불충분하다.⁴⁷⁾ 따라서 비록 자유의지가 인간의 본성이며 자연적인 능력이지만, 궁극적인 선을 지향한다는 관점에서 여전히 인간 능력의 한계를

44) Ibid., I-I, Q. 83, A. 1. 참고로 인간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인간의 본성은 걱정(passions)이다. 걱정은 일종의 감정으로서, 기쁨이나 사랑과 같은 선의 경향성을 가지기도 하지만, 두려움과 슬픔과 같은 악의 경향성을 가진다. 그러나 걱정 자체는 의지와 다른데, 인간의 의지는 이러한 걱정의 작용을 조절하고 절제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자유의지는 합리적 욕망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Ibid., I-I, Q. 95, A. 2.

45) Colleen McClusky, "Medieval Theories of Free Will," *Internet Encyclopedia of Philosophy*, (2016년 6월 27일에 접속, URL=<http://www.iep.utm.edu/freewi-n/#SH2a>).

46) Aquinas, *Summa*, I-I, Q. 64, A. 2.

47) Ibid., I-I, Q. 83, A. 1.

전제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아퀴나스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절대 자유롭지 않으며, 인간에게 자유의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에 대하여 반대한다.⁴⁸⁾ 자유의지는 도덕적 행위와 연관하여 습관에 의하여 신장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지와 행위 사이의 필연적 인과관계를 보이지 않는다. 자유의지는 자신의 행위의 원인으로서는 이에 근거하여 인간은 판단하고 스스로 움직인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인간의 자유의지가 그 자체로 첫 번째 원인은 아니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첫 번째 원인으로서의 하나님은 자연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자발적인 행위의 원인이 되신다. 모든 자연적 행위의 이면에는 그 이전에 원인이 있는 것 같이 인간의 자발적인 행위에도 목적이 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가 창조하신 것들이 그 자체의 본성에 따라 움직이도록 하셨기 때문이다.⁴⁹⁾

아퀴나스는 자유의지의 본질은 이성에 의한 자유로운 판단을 의미한다고 보며, 이러한 측면에서 자유의지는 습관이 아니라 하나의 능력으로 보는 것이 적합하다고 본다.⁵⁰⁾ 아퀴나스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인간의 행위의 원칙은 능력과 습관, 두 원칙에 결부된다. 만약 자유의지가 습관, 즉 자연적인 습관이라면,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는 것은 자연적이다. 그런데 자유의지 하에 나오는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 우리에게 자연적 습관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인간의 습관에 의한

48) Ibid., I-I, Q. 83, A. 1. 참고로 아퀴나스는 자연법의 질서에 따라서 신 존재증명을 귀납법적으로 시도하는데 다섯 가지로 구성한다. 그것은 각각 사물의 움직임을 유추하는 방식, 부모와 자녀의 관계처럼 원작용인에 대한 유추, 우연을 통한 필연의 유추, 불완전을 통한 완전의 유추, 그리고 내적 목적을 향한 지적인 움직임을 유추 등이다. Ibid., I-I, Q. 2, A. 1-3; Q. 8. 이하 I-I, Q. 83, A. 1을 참고하였다.

49) Ibid.

50) Ibid., I-I, Q. 83, A. 2. 이하 아퀴나스의 해석은 같은 article 2를 참고하였다.

행위는 자유롭게 선택하거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습관에 의한 행동은 자유롭지 않다. 오히려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연적인 본성에 반하는 행동을 선택하기도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자유의지는 인간의 자연적 본성과 습관을 거스를 수 있는 넓은 범위의 자유를 가짐으로써 습관보다는 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⁵¹⁾

따라서 아퀴나스는 자유의지를 '선택할 수 있는 인간의 행위'로 정의한다. 자유의지의 본질은 선택이다. 인간의 선택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는 인간의 인지적 능력과 욕구적 능력이 작용한다. 아퀴나스는 인지적 능력을 통하여 어떠한 행위나 선택이 다른 선택보다 더 좋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⁵²⁾ 반면, 욕구적 능력은 그 주체의 욕구가 판단의 기준이 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인간의 선택행위는 궁극적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선택 문제는 주로 공리적 판단에 연관된다고 할 수 있다. 욕구의 대상이 선이라고 본다면, 선을 선택하는 행위도 욕구적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유의지는 이러한 욕구적 능력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⁵³⁾

셋째, 아퀴나스는 자유의지를 목적과 수단의 일치로 이해하며 인간 선악여부를 판단하는 기능으로 보고 있다. 자유의지는 그 자체로 자유로운 행위이어야 한다. 자유의지를 통한 행위가 이루어지려면, 의지나 행위에 강요가 있어서는 안 된다. 아퀴나스는 자유의지의 행위는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고 보는데, 먼저 즉각적인 행위, 즉 바라는 행위이며, 다른 하나는 의지에 의해 명령되는 의지의 행위로서 이러한

51) Ibid.

52) Ibid., I-I, Q. 83, A. 3. 이하 아퀴나스의 해석은 같은 article 3을 참고하였다.

53) Ibid.

의미에서 의지의 행위는 동기적인 능력의 수단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⁵⁴⁾ 의지의 행위는 지식의 내적 원리로부터 이루어지는 의향과 같은 것으로서 이는 일종의 내면적 자유와 같은 것이다. 자연적 욕구가 지식 없이도 이루어지는 내적 원리로부터 이루어지는 의향이나, 강요나 억압은 외적 원칙으로 내적 원리를 침해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의지 자체와 연관되는 행위의 본성에 위배된다.⁵⁵⁾

아퀴나스는 인간의 자유의지는 한편으로 궁극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제한한다. 목적은 그 자체로 추구되는 것인 데에 반해, 수단은 목적을 위해 추구되기 때문에, 의지가 목적을 지향하며 움직일 수 있음은 자명하다고 할 수 있다. 이때 의지는 두 가지 방식으로 목적을 향해 움직이는데, 우선 절대적으로 그 자체로 목적을 지향하며, 두 번째로는 이성인 목적을 위한 수단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한다.⁵⁶⁾

인간의 자유의지는 또한 인간 행동의 선악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능이다. 아퀴나스는 인간의 선한 행동을 네 가지의 관점으로 정리하는데, 그것은 각각 유(genus)와 종(species), 우발성(accident) 그리고 목적이다.⁵⁷⁾ 첫 번째, 유(genus)개념으로 마치 한 장미는 여러 장미류의 한 종인 것처럼 인간의 행동이 선한 행동이라는 개념에 속하게 될 때 행동은 선하다고 본다. 둘째, 인간의 선한 행동은 그 종(species)개념에 따라 선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때 선한 행위의 종개념은 그 행위에 적절한 대상으로부터 기인한다고 본다. 셋째, 인간 행동의 선함은 그 행위의 환경으로부터 유래하며, 그 우발성(accident)

54) Ibid., I-II, Q. 6, A. 4.

55) Ibid., I-II, Q. 6, A. 4.

56) Ibid., I-II, Q. 8, A. 3.

57) Ibid., II-I, Q. 18, A. 4. 이하 설명은 같은 article에 있는 내용을 간략한다.

의 측면에서 그러하다. 그리고 넷째로 인간 행위의 선택은 그 목적으로부터 기인하며, 이는 그 행위의 선택의 목적과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자유의지는 선택의 목적과 특정한 환경 속에서의 우연성을 가진 여러 선택들 중의 하나이며, 그 행위의 종개념과 유개념이 모두 선한 행위로부터 유래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합리적 선택에 의존한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아퀴나스는 자유의지를 인간의 본성으로 이해하였고, 선한 목적을 위하여 작동하는 인간의 의지는 합리적 자유임을 강조하였다. 물론 이러한 내적 목표를 향한 인간의 자유의지가 무한한 것은 아니며,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아퀴나스의 자유의지론의 특징은 이 자유의지가 도덕적 행위의 습관에 의하여 형성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잠재태로서 자발적 행위의 목적이 되는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움직이는 본성이라고 보는 점이다. 따라서 여전히 인간은 자유의지를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선악을 판단하는 데에까지 나아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IV. 마틴 루터의 자유의지론

마틴 루터에게 자유의지는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인간에게 자유의지는 불가능하며, 오히려 ‘의지의 속박’이란 표현이 정확하다. 둘째, 인간은 하나님의 선행적 은총에 구속될 때에만 자유의지의 가능성을 가진다. 셋째, 자유의지가 회복된 후 인간의 성화는 성령에 의하여서만 가능하다. 그 내용을 각각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루터는 에라스무스의 ‘의지의 자유’(The Freedom of the

Will)에 대한 반박으로서 ‘의지의 속박’(the Bondage of the Will)을 강조한다.⁵⁸⁾ 먼저 루터는 자유의지의 정의에 대하여 논의한다. 루터에 따르면, 에라스무스는 자유의지를 인간 의지의 능력으로 보았으며, 이를 통하여 스스로 선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 반면 루터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총을 통하여서만 인간은 선을 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⁵⁹⁾

루터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선재적 은총, 즉 미리 아시며, 계획하시고, 그의 예비하심이 변함이 없는 절대적이라는 것을 믿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에 반하여 그 어떤 것도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믿는다면, 인간에게 자유의지와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⁶⁰⁾ 자유의지론에 대한 이와 같은 루터의 확신은 사탄의 실존을 통하여 인간에게는 자유의지와 같은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그의 입장에서 이해가 된다. “만약 사탄이 이 세상의 통치자로서 자신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항하는 존재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또한 사탄은 성령의 신적인 능력으로 강제당하지 않는다면, 절대 그가 사로잡은 사람들을 해방시키지 않을 것을 믿는다면, 인간에게 ‘자유 의지’와 같은 것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⁶¹⁾

또한 인간이 원죄를 가진다는 교리는, 성령의 권세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음을 나타내며, 이는 곧 인간 자신의 능력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의미한다.⁶²⁾ 루터는 자유의지를 인정하게 되면 하

58) Martin Luther, trans. Henry Cole, *On the Bondage of the Will: Written in Answer to the Diatribe of Erasmus on Free Will* (London: T. Bensley, 1823), 26절(section). Christian Classics Ethereal Library 홈페이지, (2007년 7월 1일에 최종 수정, 2016년 6월 29일에 접속. URL=<http://www.ccel.org/ccel/aquinas/summa.i.html>)

59) Ibid., 47절.

60) Ibid., 167절.

61) Ibid., 167절.

나님의 선지적 예정에 위배된다고 본다. 따라서 십자가와 은총 중심의 신학을 구성하는 데에 있어서 자유의지는 양립할 수 없다. 결국 루터에게 있어서 인간이 가지는 자유의지의 범위는 구원이나 칭의는 불가능하며, 오직 죄를 지을 자유만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루터는 “빛이 세상을 비추었고 어둠은 깨닫지 못하였다”(요 1:5)는 말씀과 “그가 세상에 계셨으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의 백성들에게 오셨으나 백성들도 깨닫지 못하였다”(10-11절)는 말씀을 통하여 ‘세상’이라는 뜻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로는 그 어느 누구도 예수와 성령을 알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서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이다.⁶³⁾

둘째, 루터의 인간론에 근거하여 볼 때 인간의 의지는 언제나 속박되어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자유의지는 순전히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며, 위대한 하나님께만 적용될 수 있는 단어인 것이다.⁶⁴⁾ 여기에서 루터는 죄인이자 동시에 의인이라는 인간론을 확정한다. 인간의 자유의지는 오직 하나님만의 자유의지에 지배되며 구원이나 영원한 형벌로부터 인간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한,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지 못하는 것은 분명한데, 인간의 의지는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든지, 아니면 사탄의 의지에 종속되어 그의 의지에 지배당하는 길 외에는 없기 때문이다.⁶⁵⁾

따라서 인간의 변화 가능성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총에 의하여서만 가능하다. 자신의 교만을 겸손하게 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아는 것을

62) Ibid., 52절.

63) Ibid., 56절.

64) Ibid., 26절.

65) Ibid.

최고의 가치로 하고, 그리고 믿음을 가질 때 인간의 자유의지의 망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⁶⁶⁾ 하나님은 겸손한 이들에게 은총을 베푸시는데, 여기서 겸손이란 스스로 애통해 하며 절망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완전히 겸손할 수 없는데, 오로지 구원은 그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 의지 그리고 업적과 같은 것과는 상관이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기 때문이다.⁶⁷⁾

따라서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는 인간의 자유의지란 진정한 자유가 아니며, 악의 종이자 악에 붙잡힌 노예의 상태를 의미한다.⁶⁸⁾ 그러나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 자유의지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총에 의하여 유지되는 것이다. 타락 이후 상실한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구속을 통하여 그 자유의지를 회복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자유의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자유의지는 어느 정도의 노력이나 열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나 성령의 도움이 전혀 없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전적으로 자유한 능력과 힘”을 말하기 때문에 결국 인간의 능력을 절대화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⁶⁹⁾

루터는 하나님의 은총을 강조하여 인간의 자유의지가 완전하게 된다는 식의 논리를 경계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인간의 자유의지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관점이 옳바르다고 강조한다.⁷⁰⁾ 자유란 오로지 하나님의 자유만을 의미하며, 하나님이 은혜로 인간은 의롭게 되는 것을 통하여 자유하게 되는 것이다.⁷¹⁾ 그렇다고 하나님

66) Ibid., 24절.

67) Ibid.

68) Ibid., 26절.

69) Ibid., 65절.

70) Ibid., 132절.

71) Ibid., 147절.

의 은총이 값싼 것은 아니며,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 이 세상의 주권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셋째, 하나님의 은총을 통하여 변화되는 인간은 성화의 단계로 들어가는데, 이는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확신한다. 인간이 변화되는 구원에 관하여, 성화란 자유의지나 육체의 의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만 가능한 최고의 것들로부터 가능한 것이다.⁷²⁾ 인간은 스스로 도덕적으로 완성될 수 없다. 성화란 하나님과의 긴밀한 친교를 전제한다. 인간은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수밖에 없다.⁷³⁾

루터에게 있어서 인간의 의지는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에 종속되어 있어야 한다. 만약 인간이 선과 악을 모두 선택할 자유로운 의지를 가진다면, 하나님의 구속은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진리가 되는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은 그 의지를 스스로 사용하거나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결국 하나님이 인간 안에서 일하실 때, 인간의 의지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변화되며,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게 되는데, 이때 의지는 인간적인 충동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에 반응하며, 기꺼이 자신의 의지를 위탁하며 따르는 것이다.⁷⁴⁾ 즉,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의롭다 인정받고 신앙으로 나아가는 방향은 자유로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 사로잡힘으로써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써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수동적인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⁷⁵⁾

72) Ibid., 33절.

73) Ibid., 116절.

74) Ibid., 25절.

75) Ibid., 26절.

“세상의 자녀들이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다”(눅 16:8)는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자유의지가 크리스천들의 의지보다 탁월하다는 뜻이 아니라, 실제로 그 의지는 왜곡되어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⁷⁶⁾ 성화되어져 가는 가운데 인간이 깨닫게 되는 것은 혈육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인간이 제아무리 노력을 하며 율법을 지키려고 하여도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육체의 정욕을 피할 수 없는 것이며,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 외에는 거룩하여 질 수 없다.⁷⁷⁾ 또한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할 말씀을 통하여 구원을 위한 영적 빛의 역할을 하게 된다.⁷⁸⁾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루터는 자유의지의 문제를 인간의 전적 타락과 하나님의 은총을 통한 칭의의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 자유의지의 문제에 실존적인 맥락에서 사탄의 예를 들면서 세상의 악의 관영이 인간의 타락과 결부된 것이며, 만일 자유의지가 가능하다면 십자가의 구속론도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 루터의 입장이다. 루터는 아울러 인간이 가진 의지의 자유는 오로지 죄를 지을 자유만을 가진 것이라고 못 박으면서 인간의 의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종속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인간의 의지의 역할은 하나님의 은총을 통하여 완전한 자유의지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지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최고의 진리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의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이다.

76) Ibid., 32절.

77) Ibid., 156절.

78) Ibid., 34절.

V. 결론: 어거스틴, 아퀴나스, 마틴 루터의 자유지론과 기독교윤리적 의의

어거스틴은 존재의 위계질서에 기초하여 인간의 자유지론의 가능성을 설명하였으며, 그러한 질서를 판단할 수 있는 가능성은 인간의 실존적 판단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존을 존재케 하는 인간 너머의 능력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존재하는 인간은 실존을 이해하는 궁극적인 존재가 아니며, 오히려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기준인 진리와 미와 선이 존재해야 하는데, 이는 인간 내에 있는 것이 아니다. 결국 인간의 판단이 옳고 그름됨을 알 수 있으려면 항상 변함없고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비록 인간의 판단 능력이 진리를 향한 물음에서 시작되지만, 진리를 알 수 있는 참과 거짓 여부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있는 것이다. 다만 신플라톤주의의 영향을 받은 어거스틴의 관점에서 보면, 악은 선의 부재이며, 실재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선의 부재를 통한 고통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동기를 유발하게 된다.

아퀴나스에게서 인간의 자유지론은 자연법적 관점에서 내재적인 본성으로 파악되고 있다는 점에서 진선미의 기준을 향하여 지향점을 가진다는 점에서 어거스틴의 존재론과 비슷한 점이 있지만, 어거스틴의 경우, 자유지론의 가능성이 인간 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 너머에 있음을 강조함으로써 아퀴나스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퀴나스에게 자유지론은 덕의 함양을 통하여 인간적 능력에 의하여 신장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이성의 본성으로서 신적 지혜에 이끌림 받는 능력으로 봄으로써 현실태의 궁극적 선을 향하는 잠재태로서의 자유지론을 강조하기 때문에, 어거스틴보다 인간 이성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루터의 인간론은 어거스틴과 차이가 있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어

거스틴이 인간을 부분적으로는 선하고 부분적으로 죄인으로 보아서 선의 증가를 통하여 악이 감소하는 반비례적인 방향으로 인간의 죄성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면, 루터는 인간을 완전한 죄인이자 의인, 즉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인간론을 지향한다. 루터는 또한 자연법적 관점인 아퀴나스의 입장과는 전적으로 다르게 인간의 자유의지의 가능성은 죄를 선택하는 의지의 가능성 밖에 없음을 주장함으로써 아퀴나스적인 이성적 영혼을 통한 자유의지의 가능성과는 전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⁷⁹⁾

지금까지 살펴본 신학적 인간론에서의 고전적 자유의지론이 기독교윤리학에 공헌 할 수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 관점에서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각각 인간의 자유에 대한 신학적 이해, 둘째, 인간의 의지에 대한 비판적 관점, 자유와 의지의 통합적 관점 그리고 덕의 함양에 관한 것인데, 그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간의 자유에 대한 고전의 신학적 통찰력은 인간이 추구하는 자유의 한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현대의 인간성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고 본다. 하나님의 창조세계의 질서 속에서 인간의 이성적 능력에 기반한 자유의 가능성은 21세기 지구사회의 현실을 볼 때 여전히 암울하다고 할 수 있다. 자국의 실리를 추구하기 위하여 중동에서 벌어지는 에너지 전쟁, 종교 간의 평화가 깨어지고 벌이는 종교분쟁과 종교간 폭력, 군사력의 무한경쟁 체제에서의 국제 평화의 위기, 지구촌 난개발로 인한 생태계 파괴, 식량에너지의 싸움 등, 인간 사회가 펼치는 자유라는 의식의 현 주소는 암담하다. 물론 역사의 과정 속에서 그 이전 보다 상대적인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추구하는 자유의 한계를 직시한다면, 미래 사회

79) Ibid., 94절.

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인 생태 환경을 갖출 수 있다고 본다. 인간의 자유란 본성에 그 가능성은 있지만(아퀴나스), 무한한 것이 아니라 왜곡되었으며(어거스틴) 그리고 전적인 타락(루터)에 이르렀다고 보는 고전의 이해는 인간이 신장하는 자유의 한계를 공히 지적한다. 이와 같은 고전적 인간론을 통하여 우리는 이 시대 인간성의 발현으로 궁극적 가치로 목표를 삼는 '자유'가 과연 무엇인지 다시 돌이켜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인간의 '의지'에 대하여 고전적 인간론은 윤리학에 큰 통찰력을 제시하고 있다고 본다. 어거스틴이 이해한 인간의 의지는 결국 왜곡되어 습관이 되고, 습관은 인간이 제어 할 수 없는 필연이 된다.⁸⁰⁾ 인간의지의 한계를 직시하고 있는 대목이다. 아퀴나스도 인간의 의지는 자연법에 의하여 이성적 능력으로 하나님을 지향하는 능력으로 이해하였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의지는 하나님의 은총에 의하여 구속당하여야 한다. 루터는 인간 의지의 전적 타락을 강조함으로써 칭의에 의한 은총이 아니고서는 의지의 가능성은 없다고 보았다. 현대 인간론에서 의지와 행위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교육의 노력과 계몽, 과학적 이성의 훈련, 정치 경제적 체제론을 통한 정의의 실현, 문화 통합과 도덕적 인성 교육 등 나름 인간 의지를 통한 인간성의 발현에 벽을 느낀다. 인간 의지가 의지한대로 그 결과를 맺기는커녕, 의지에 반하여 또는 의지가 또 다른 의지에 종속되거나 갈등을 유발하여 끊임없는 긴장 관계에 인간은 처하여 있다. 따라서 고전적 인간론에서 제시하는 인간 의지의 한계를 직시하고, 신학적 인간론에서 제시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통한 의지의 회복과 선을 향하여 지속가능한 삶의 구현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80) Augustine, *City of God*, 7권 11장.

셋째, 인간의 자유와 의지가 분명한 한계에 처하여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인간의 자유의지의 한계를 직시하고, 고전적 사상가들이 제시한 신학적 통찰력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어거스틴은 진리란 모든 곳에 존재하며, 외적으로는 인간에게 올바른 길로 안내하며, 내적으로는 가르침으로써 이것을 이해하는 모든 사람을 더 좋게 변화시킨다고 보았다. 그러나 그는 “만약 진리보다 더 뛰어난 어떤 것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뿐이다. 그렇지 않다면, 진리 자체가 곧 하나님이다. 따라서 진리가 하나님이든, 아니면 하나님께서 진리를 가능하게 하시든, 당신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라고 주장한다.⁸¹⁾ 아퀴나스도 궁극적 선은 하나님이며,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께 의지할 때 그 선을 파악하기가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한다(참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시 73:28).⁸²⁾ 루터는 인간의 전적 타락을 통하여 도덕적 양심의 회복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총에 달려 있다고 주장하였다.

넷째, 앞의 서론에 밝힌 것처럼 고전적 관점을 통한 인간의 자유의 한계를 규명하고자 하는 관점이 자칫 하나님의 은총만 기다리는 ‘정적’(stillness)주의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필자는 위의 고전적 자유의지론은 인간의 수동성을 넘어서 의지를 훈련하여 보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인간의 모습을 신장하고 구현할 수 있는 해석이 여전히 가능하다고 본다. 예를 들어서 어거스틴은 인간의 의지의 왜곡에 의한 ‘습관’이 악으로의 ‘필연’이 되는 과정을 지적하였으며, 아퀴나스는 궁극적으로 목적론적인 덕을 지향하는 인간존재론을 제시

81) Augustine, *On Free Choice of the Will*, 2권 14장. 비슷한 논리의 주장에 관하여, *City of God*, 8권 5-6장; Augustine, trans. J. H. S. Burleigh, *On True Religion* (South Bend, Ind.: Regnery/Gateway, 1959), 29장, 52-30장, 56. 등을 참조하라.

82) Aquinas, *Summa*, II-II, Q. 27, A. 6.

하였고, 루터 또한 의지의 잘못된 경향성을 꼬집었다. 이와 같은 지적은 윤리적 공동체를 구성하는 데에 있어서 교육과 인성 그리고 덕의 훈련이 여전히 중요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상품의 세계화는 있지만 인간의 소통은 없으며, 학문은 있지만 철학은 없고, 소비는 추구하지만 생산의 과정에 관심이 없으며, 기술은 있지만 인간성이 상실되어가는 현대 문명의 한계를 직시하고 타자를 배려하고 공동체를 중시하는 ‘덕의 훈련’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기독교 공동체는 신앙의 ‘파편화’(fragmentization)와 ‘사사화’(privatization)를 넘어 사회의 공적 영역에서의 도덕적 책임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개인적 영성에서 책임적 지성으로, 삼위일체의 존재론에서 삼위일체의 사회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본다.⁸³⁾

비록 현대 인문학의 인간론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강조하는 신학적 인간론의 자리가 점점 소외되는 현실에서 고전적 인간론에서 지적하는 인간의 한계와 이를 극복할 신적 은총의 요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학의 정수로서 자리매김을 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는 은총을 의지하는 인간의 수동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적 형상을 가진 인간의 주체성을 확립하며, 욕망하는 인간이 아닌 하나님과 세계에 응답하는 인간으로서 책임을 가진 인간 그리고 그 인간의 의지가 자유를 신장하고 나아가 궁극적 선을 지향할 수 있다는 예언자적 사명을 가진 인간과 공동체를 구현하는 것이다. 이것이 고전적 인간론에서 펼친 사상가들에게 배울 수 있는 교훈이라고 본다.

83) 필자는 ‘삼위일체의 사회화’ 개념을 레오나르도 보프(Leonardo Boff)에게서 빌려왔다. 그는 삼위일체는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자신의 성육신을 사회화하여 나아가는 ‘사회적 성례전’의 과정임을 강조하면서 사랑에 기반을 둔 기독교 공동체의 책임을 중시하였다. 로저 울슨 외/이세형 옮김, 『삼위일체』(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4), 146-147.

주제어 Keywords

자유의지, 의지의 속박, 어거스틴, 토마스 아퀴나스, 마틴 루터, 기독교윤리

Free will, The bondage of the will, Augustine, Thomas Aquinas, Martin

Luther, Christian Ethics

참고문헌

- 로저 올슨 외/이세형 옮김, 『삼위일체』. 대한기독교서회, 2004.
- Augustine. *Anti-Pelagian Writings. Nicene and Post-Nicene Fathers Series 1, Volume 5*. ed. Philip Schaff, Cosimo Classics: 2007.
- _____. *On Free Choice of the Will*. Translated by Thomas Williams. Cambridge: Hackett, 1993.
- _____. *City of God*. Translated by Henry Bettenson. New York: Penguin Books, 1972.
- _____. *On True Religion*. Translated by J. H. S. Burleigh. South Bend, Ind.: Regnery/Gateway, 1959.
- _____. *Confession and Enchiridion*. Translated by Albert C. Outler. Dallas, Texas: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Press, 1955.
- Aquinas, Thomas. *Summa Theologica*. Translated by Fathers of the English Dominican Province. New York: Benziger Bros., 1974.
- Brown, Montague. "Augustine on Freedom and God." *The Saint Anselm Journal*, 2, no. 2 (Spring, 2005).
- Langford, Michael J. *The Tradition of Liberal Theology*. Grand Rapids: Eerdmans, 2014.
- Luther, Martin. *On the Bondage of the Will*. Translated by Henry Cole. London: T. Bensley., 1823.
- McNall, Joshua. *A Free Corrector: Colin Gunton and the Legacy of Augustine*.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15.
- Scott, Mark S. M. *Pathways in Theodicy: An Introduction to the Problem of Evil*.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15.

Abstract

Theories of 'free will' and Christian Ethics: A Study on Augustine, Thomas Aquinas and Martin Luther

Kyoung Dong Yoo, Ph.D.

Professor, Department of Ethics and Society
Methodist Theological University

This paper explores the thoughts of Augustine, Thomas Aquinas and Martin Luther, raising questions on the nature of 'free will' in relation to Christian Ethics.

Augustine's view on human free will is related to his theology of original sin. Humans have original sin as well as free will, so humans cannot avoid the evil reality with only the free will. Original sin distorts human will and because of it, humans inevitably face corruption and sufferings. Since human will is only free to commit sin, humans have to unite with God through divine grace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sin and evil.

On the other hand, Aquinas, following Aristotle, defines free will as the human nature. Humans can pursue good goals with their rational freedom and possess potentials to head towards God's will. Aquinas postulates that human free will is the inner moral criterion for

discerning right and wrong, which allows humans potentials for moral virtues.

Martin Luther, among the three theologians, has the most limited and negative view on human free will. Humans are totally corrupted and, thus, only by God's grace they can have justification. Luther insists that, if humans have free will in terms of soteriology, the atonement of the Cross is meaningless. Therefore, Luther considers human free will is only limited to freedom of committing sin.

After reviewing the related issues briefly, this paper ends with the importance of Christian classic notions of free will in cultivating a sense of morality in the world where Christian ethics is called to respond to the challenges we face today.

- 투고접수일: 2016년 06월 30일
- 심사완료일: 2016년 08월 02일
- 게재확정일: 2016년 08월 23일